

만남

2020년 11월
통권 190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또 다시 위령 성월을 맞이했습니다---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그 날과 그 시간-----	4
교리	신앙 산책-----	7
나눔	-----	10
지혜로운 삶	-----	12
영적 상담	-----	14
기도하는 삶	-----	16
알림	-----	17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전례	-----	19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보편 지향 : 인공지능

로봇 공학과 인공 지능의 발전이 언제나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다시 위령 성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다시 위령 성월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미사 후에 함께 연도를 바침으로써 그래도 선종하신 분들과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인 연도를 함께 봉헌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울적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도 혼자구나. 주님께서서는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시는구나. 나는 철저한 외톨이,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적 식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부터 주님께서서는 우리 인생길에 밀착 동반하고 계십니다. 세상살이에 바쁜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께서 우리 삶의 매 순간 안에 충만하게 현존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근심걱정으로 인해 우리 시야가 가려져서 그렇지, 성모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서 걸으시며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신학에 따르면, 유다 왕국의 멸망,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느님 없이 스스로 서려는 하늘을 찌르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언제나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강조합니다.

김종삼 시인(1921~1984)의 어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매어 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지만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따지고 보니 우리네 인생, 날마다 출렁입니다. 풍랑에 뒤집히는 날도 있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날도 있습니다. 견디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폭풍우가 지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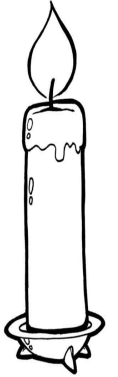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성모님 꼭 붙들고, 그분들 은총과 도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위령 성월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등 뒤에 주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나를 떠받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마태 25,1-1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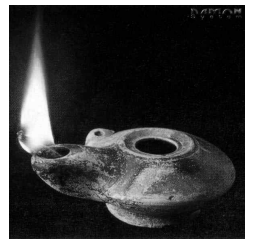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 언제나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당신께 저희의 사랑을 드리나이다.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5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 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 5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 7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 8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 25 10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 11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 12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 13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결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 처녀 모두에게 등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느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름을 넉넉히 채긴 사람들을 가리키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선 기름 채기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리하여 정작 빛을 비추어야 하는 시점에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이들, 잡혀간 이들,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도록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마다 손에 등을 들고 서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을, 주변 사람들을, 세상과 그 역사를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천할 원의를 품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며, 즐거운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 신경해설 - 저는 믿나이다

신경(信經, 라틴어 Credo)은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교회가 바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적에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또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8)과 같은 짧고 단순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부터 주님의 가르침 전체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담고 있는 신앙고백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쓰이는 신경으로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있는데, 이 중 사도신경이 더 짧고 보다 오래 된 신경이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니케아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폴리스공의회(381년)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풍부하게 표현된 신앙고백문입니다. 『미사경본 총 지침』에 보면, 본래 미사 전례 때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도록 되어 있고 때때로 사도신경도 바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가 전례에 채택한 공식 신앙고백문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모든 이가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을 더욱 잘 이해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 수도회와 본당 공동체, 그리고 모든 교회 단체는 공적으로 신앙 고백(Credo)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자의교서 『믿음의 문』 8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부터 전해 받은 나의 신앙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믿음의 정수를 아름답고도 틀림없이 담고 있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자주 바쳐서 입과 머리와 마음에 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일으키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신경을 바칠 때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의 전례 중에 바치는 신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이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서로 목소리를 합쳐서 “같은 믿음”(티토 1,4)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참 아름답고 뜻 깊은 일입니다.

2. 신경해설 -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절대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마도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불안한 인생살이에 어딘가 의지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는 더 깊은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고 못 하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른 듣기에 아주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에 이어지는 말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에도 그렇게 하지만 신경을 바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 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도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평생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자식이 혹시 못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속을 태워도 부모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은 인간 부모의 자식 사랑을 멀리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참으로 무엇이든 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물속에도 뛰어 들고, 불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여 주시려고 몸소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셨고, 죽을죄를 지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셔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저주하는 극악무도한 인간이라도,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신경의 맨 첫머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 하실 일이 없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가 능력인 줄 착각하지만, 불가능을 모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 신경해설 - 천지의 창조주

세상 사물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산이나 바다도 수십억 년 전에는 없었고, 장차 또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있다 없다 하는 무상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료나 도구가 필요 없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오직 당신의 뜻과 말씀만으로, 아무 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물을 지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들뿐 아니라 형체가 없는 시간이나 공간, 우주의 모든 법칙, 사람의 영혼이나 천사들도 하느님께서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할 때, 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 곁에 있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고, “그 때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살아있거나 하겠는가?” 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있게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살아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귀여워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12.18.21.25)고, 특히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고 말합니다. 착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나쁜 것, 못 쓸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십니다. 심보가 고약한 우리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을 나쁜 목적에 쓰거나 망치거나 하는 것이지요. 하찮은 모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모기보다 훨씬 귀한 이 ‘나’라는 존재는 어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나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신 좋은 뜻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나를 좋게 보시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나를 만드셨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두루 갖추어 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나를 귀엽게 여기시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아 주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입니다.

◆ 묵주기도 성월에(심선옥 도미니카)

어느 날 저녁,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성모님과 일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성모님을 절실하게 찾은 듯 싶습니다. 우선 성모님과 기도 속에 일치하려면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따르는 행동과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잘 갖추어야 덕을 쌓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묵주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새삼 다시 느껴보았으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늘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지혜롭게 처리한다면 좋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묵주기도는 하느님께로 묶어주는 끈이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바치면 더 좋은 다시 살아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상과 소리기도와 함께 마음이 불안할 때, 또는 괴로울 때, 기쁠 때에, 등불처럼 밝혀주는 묵주의 기도 시간 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성모님께 찬미의 꽃다발을 봉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저 나름대로 한 교우로써 저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로사리오 향기가 피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답을 사는 삶(임선혜 아네스)

미국 피츠버그에서 말러의 4번 교향곡을 녹음할 때였습니다. 몇몇이 함께 녹음 본을 듣고 의견을 나누던 중 지휘자가 갑자기 양해를 구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한 시간쯤 지나 그가 돌아올 때까지 모두 태연하게 휴식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이 없던 다음 날엔가, 아침 숙소 근처의 성당에 매일 정오 미사가 있다길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거기서 성체를 모시고 나오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도 그 미사를 드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상임을 맡으며 미사 시간 배려를 약속 받았다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묵주기도는 물론 매일 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연주여행 중에 낯선 나라와 도시에서, 가까운 성당과 일정에 맞는 주일 미사를 찾기도 보통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닌데,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대륙을 수없이 횡단하는 그가 미사를 매일 드린다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신앙을 가진 음악가 찾기는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성당에 나가는 것이 몸에 배긴 했지만 얇은 믿음에, 의심도 많은 저는 신기한 사람을 만난 듯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비즈니스가 아닌가. 분명 성공으로 가는 길과 신앙에서 가르치는 바가 충돌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돌아온 그의 대답은 차분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 음악가가 되었으니, 내가 추구하는 음악을 최대한 잘 펼쳐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 보다 뛰어난 오케스트라들과 작업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그런데 나중에 하늘에 가면 그분은 내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너 베를린 필 지휘해봤어? 밀라노 스칼라극장은 몇 번이나 서 봤지? 뉴욕엔 못 갔구나!’ 과연 그러실까? 아닐 거다. 나는 그분이 물어보실 질문에 대한 답을 살려고 한다.”

눈과 머리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현실 속의 딜레마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명료한 기준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세상 마지막 날에 만나리라 확신하는 그분, ‘하느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지휘자이지만 어떤 것이 그의 음악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알아낸 듯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талан트를 그걸 허락한 분의 방식으로 열 배, 스무 배로 불리는 진정으로 멋진 음악가의 존재가….

자신의 남다른 신앙생활이 종종 비웃음을 산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저도 용기를 내어봅니다. ‘물어보실 것에 대한 대답’을 살아볼 용기를….

다음 날 미사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그와 멀찍이서나마 아주 특별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위령 성월에 떠오르는 얼굴(석민자 매임데레사)

하늘로 가는 문과 마음의 문엔 손잡이가 없다든가. 화장장에서 한 줌 재가 되어 나온 희야의 뺨가루를 안고 납골당으로 향하던 날은 쨍하도록 하늘이 맑아 있었다. 혼백은 화장장에서 떠나보내고 한줌 재로 남은 시신을 향아리에 담아 안고 차에 올랐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이리 주검을 대할 적이면 늘 마음이 적요하다. 얼마를 살아야 다 살았다고 할지는 몰라도 분명 서른넷은 아닐 것이다. 네 살배기 딸을 육순의 친정부모에게 맡겨두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해도 그 길은 아닐 것이다. 의학적으로 숨이 멎고도 그리 오래 등이 식지 않았음도 못다 한 이승이 발목을 잡아서이리라. 삼 년여 동안이나 투병을 했고 자신의 상태를 험히 꿰뚫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거부하던 그 바탕엔 눈물이듯 자식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리라. “희야, 희야! 이 어린 것을 두고 니가 가든 날더러는 우짜라는 말이고? 하느님! 하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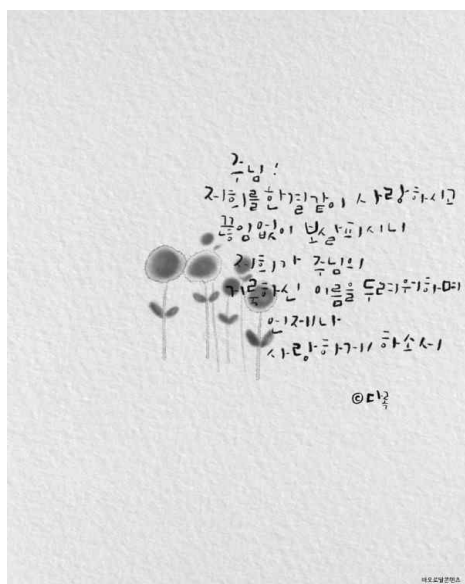
모친이 뉘두리를 늘어놓으며 통곡을 한다. 슬픔이 지나치면 눈물도 말라버린다던데 저리 소리 내어 울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겨야 될지 모를 일 이기는 하다. 기왕 불가마 속에 들었던 몸, 뺨가루도 뺨이뺨이 뿌려버렸으면 싶었다. 남들은 다 있는데 자신에게만 없는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이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면, 비록 손잡이마저 없는 한 뼘 공간일지라도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자식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일이 아니냐고. 벽속에 갇힌 채로 산화되어야 할 뭇은 어디까지나 희야가 안고 가야 할 업보이겠거니 치부해두자고.

성장을 멈춘 구월의 들녘은 다소곳이 옷깃을 여미고 논머리에 있는 저수지에도 가을은 깊게 내려와 있었다. 물도 저렇게도 고요할 수가 있을까. 끝이 어딜까 싶게 잠겨있다. 젊디젊은 나이에 어린 자식까지 두고 가는 걸음이 반듯하다면 사람이겠는가. 상여도 없이 가는 길, 구름이듯 흰 국화꽃으로 에워싼 꽃상여에 무지개 같은 만장을 휘날리며 간다고 해도 서러움은 서러움대로 남을 것을, 상주 하나 없이 가는 길에 햇살은 또 어찌자고 저리도 찬란한지.

나비처럼 팔랑팔랑 뛰어다니는 딸아이는 오늘이 뭘 하는 날인지를 알지 못한다. 삼 년여를 병원과 집을 오가며 투병을 했으니 그 아이 기억엔 저를 키워준 할머니만 남아있을 것이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투병생활. 두 손 마주 포개 배

위에 엮고 반듯이 누운 자세로 밤을 보내고 낮을 맞던 희야. 등 돌린 남편으로 인해 마음 다치고 사위를 마뜩찮아 하는 모친등살에 상처가 덧나고, 그 사이에서 숨이 차오르면 가만가만 가슴팍이나 두드리던 희야. 자식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해주라는 말에 내내 펴고 있던 두 손을 도로 거머잡던 희야. 결국은 남편도 펴주질 못하고 자신도 펴지를 못한 채 그렇게 거머잡고서 갔다. 어린 자식도 그렇게 거머잡고서 갔다.

죽음은 어떤 것이 됐건 고통과 회한이 따른다. ‘화타’라 해도 회한까지는 어떻게 할 재주가 없던 것을. 호스피스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들. 외려 못다 살고 가는 축에서 더 순수함을 본다. 집착이란 살아온 세월과 비례를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입을 열기까지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열리고 나면 꾸리에 감긴 명주실이다. 유년 적부터 끌어내야 별 무리가 없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유년은 그리움이고 고향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걱정 없던 시절, 마냥 건강하고 푸르던 시절을 얘기하는 동안은 표정도 아이같이 유순해진다. 더께가 고염나무 밑둥만 같은 얼굴에 번져나는 천진한 웃음은 해탈이다. 속이 행할 정도로 쏟아내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등허리가 시려진다.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다음번에 와보면 침대가 비어 있거나 또 다른 환자로 채워져 있기 십상이다. 들어왔는가 싶다보면 떠나가고. 오래 머물기를 바랄 일이야 없다고 해도 빈자리는 어쩔 수 없이 시린 마음이게 한다. 한 세상을 살아낸 노인들은 그나마도 느슨한 마음일 수가 있지만 못다 산 주검 앞에선 매번 조여드는 마음이 된다. 자기가 만들어 둔 문 안에 저 스스로를 가둬 놓고 사는 동물이 사람이라고 했던가. 평생을 문에 매달려 살아 왔 으면서도 정작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 하느님의 발치에도 닿을 수가 없는 만물의 영장이다.



질문 : 청년들과의 대화 모임에서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였더니 한 청년이 “기도는 도피하는 사람, 현장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비겁한 방법이 아닌가요?” 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말문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여왔지만 그런 물음은 처음 받아보아서 당혹스럽습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

기도가 자기 변명 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도피처 혹은 자기 변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기도가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정국이 혼란할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심리학자 짐바르도가 평범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1971년에 사전 면접을 통하여 정신 건강이 정상인 미국 중산층 대학생 24명을 선정하여서 모의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스탠퍼드 실험이라고 하는데 24명이 동전 던지기를 하여 무작위로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고, 가급적 실제상황처럼 만들기 위해서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집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를 거쳐서 모의 교도소에 오게 하였습니다.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입소 과정을 통과한 후 모의 교도소에 수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 번호를 주어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발목에는 사슬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 역시 군복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끼게 하고 죄수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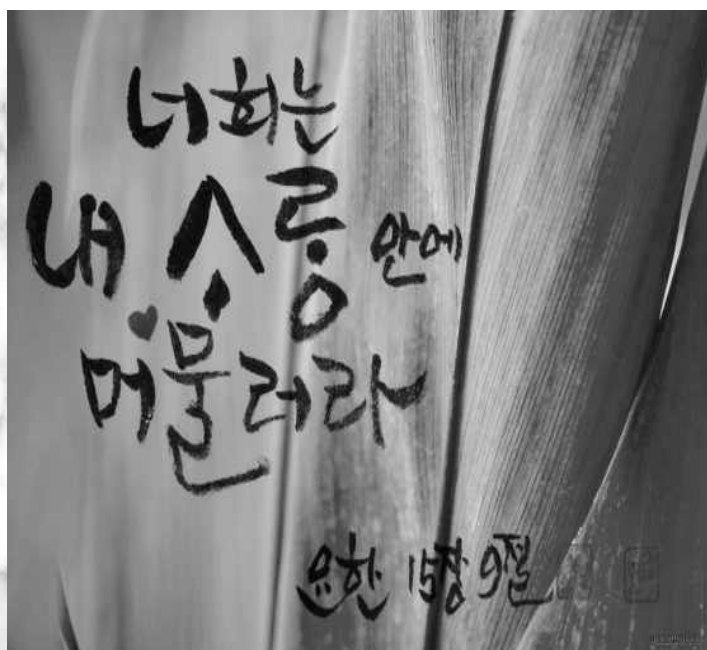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해져서 결국은 시작한 지 6일 만에 실험을 중단한 것입니다. 짐바르도는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상황에 처하면, 아무리 작더라도 권력을 휘두를 자리에 앉으면 악인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독재를 하는 이유, 심지어 크건 작건 사회적 혹은 종교적 책임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작태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누구나 지배 욕구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함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늘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심하게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심하게 단죄하다 보면 무의식적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단죄를 하면서 그런 우월감이 주는 쾌감을 맛보기에 단죄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마음 안이 분노로 가득 차면 자신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처럼 여겨짐과 동시에 자신처럼 나서지 않는 사람들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죄를 하게 됩니다. 비겁하다거나 혹은 도피주의자들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마음 안이 분노로 가득하면 세상이 명료하게 보이는 것은 현명해져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좁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속이 좁아지고 사람들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함부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약점을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들이지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병적인 현상을 막으려면 즉 마음을 진정하고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기도하는 시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 기도와 끓는 물

수도자 보시무스는 수도원장 아르세니우스에게 와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르세니우스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부시무스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만 해도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더없이 포근해지곤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불같은 것이 타올라 깊은 위로를 맛보곤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어 기도를 드려도 무미건조하고 황량할 뿐입니다.”

수도원장 아르세니우스는 아무 말 없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물주전자를 불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자 잔에다 얼마간 따라서 보시무스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끓는 물을 들이켜 보시오.”

보시무스는 마셔 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펄펄 끓고 있는 물을 어떻게 마신다는 말입니까?”

아르세니우스가 대꾸했습니다.

“기도도 그와 같아요. 초심자의 기도란 항상 위안이라는 열기가 배어 있어 뜨거운 물과 같답니다. 당신이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없듯이 하느님 역시 초심자들의 기도는 제대로 들이키시지 못합니다. 초심자들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위안 때문에 기도를 드리니까요.”

“다정하신 원장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시무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도원장 아르세니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끓는 물은 식혀야 하듯이, 기도 역시 건조기를 거치면서 식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 기도를 계속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하느님께 더 없는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펄펄 끓던 물이 충분히 식자 수도원장 아르세니우스는 물잔을 보시무스에게 주었고, 보시무스는 그 잔을 마시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원장 앞을 물러 나왔습니다.(앤드류 마리아,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당 및 지방공동체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벌써 50년이란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도에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내용 *

- 1) 기념미사(14시) : 2021년 6월 26일(토),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2) 음악회(16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3) 기념식사(18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강당
- 4)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행사 준비 담당 *

- 1) 기념 미사 : 주임신부님, 회장님, 전례분과.
- 2) 사진전시회 : 최장용(레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동훈(노엘), 박성아(베로니카)
- 3) 음악회 : 김성윤(마르코), 김한솔나(리드비나)
- 4)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 :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우연(아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정명옥(살로메)

* 협조 사항 *



상기와 같이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50주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들.
- 2) 개인들의 시, 수필, 신앙체험 등 그 외에 좋은 추억의 글들.
- 3)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자유기도를 전 신자분들께 청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성당 기도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준비 위원장 허길조(안드레아) Tel. 5553441

❖ 1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실비아	김권최 점우효 선애진	17일	엘리사벳	허(김)영란 김에리자
5일	엘리사벳	송오박 옥세민 자숙주 한경사 (이김미벨)	22일	체칠리아	김애란 이영희 이석희 이민효 김숙
10일	레오	최장용 김현일 추연구	30일	안드레아	김영경 권지연 김삼용 김성곤 허길조
17일	빅토리아	김귀숙 구자옥		안드레아	

❖ 1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일	레오	이진규(H)	22일	체칠리아 (마리 세실)	조영실(B)
16일	젤트루다	김순자(B)	24일	플로라	유혜선(B)
17일	엘리사벳	이경희(O) 이복순(O)	25일	카타리나	김선민(O)
			30일	안드레아	이재건(O)



❖ 11월 성가번호 ❖

10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294	216	498	37
8일	27	512	154	423
15일	48	54	164	31
22일	75	212	153	73
29일	95	342	170	91

❖ 1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8일	최성자(벨라데타) 김매자(베로니카)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X
15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2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X
29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네스)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우리가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에게서 굳건히 서있는 달과 별들을 ...



인간이 무엇이기어
이토록 기억하게 주십니까?
사랑이 무엇이기어
이토록 돌아와 주십니까?

시편 137

당신에게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가서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받는 이들을 당신에게서 감사하리이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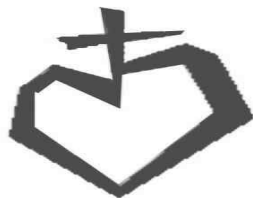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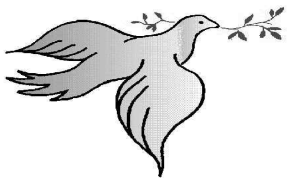


시편 137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1월 2일 월요일 위령의 날, 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11시에 Friedhof-Ohlsdorf Kapelle 13에서 연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미사 후 선종하신 교우들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무덤축성과 함께 꽃과 촛불을 봉헌합니다. 미사 장소 주소는 Friedhof-Ohlsdorf Kapelle 13, Fuhlsbüttler Str. 756입니다.
2. 11월에도 꾸리아, 연령회 등의 모임은 없으며 만남성당에서의 평일미사와 레지오, 그리고 예수 성심 성당에서의 주일미사만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11월 22일 일요일은 Diasporasonntag 2차 헌금이 있습니다. Diaspora라는 말은 유배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소수 민족으로 살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독일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Diasporasonntag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4. 11월에도 주일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5.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어려운 때입니다. 가끔씩 안부전화라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미사를 10월부터 재개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미사 후 공동체 나눔은 없으며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지방공동체 신자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건강하시길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1월(위령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모든 성인 대축일		
2	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위령미사(올스도르프)	
3	화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		
4	수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5	목			
6	금			
7	토	입동		브레멘 공동체
8	일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9	월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10	화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11	수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12	목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13	금			
14	토			오스나브뤼크
15	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16	월			
17	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18	수			
19	목			
20	금			
21	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22	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소설)	Diasporaspnntag (2차 헌금)	
23	월			
24	화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25	수			
26	목			
27	금			
28	토			
29	일	대림 제1주일		
30	월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